

# 창업교육 전후 창업인식에 관한 연구 -M대학교 시니어창업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Recognition for Foundation Before and After Foundation Education -Focused on the case of senior foundation education in M university-

조윤아\*, 박민규\*\*, 문윤걸\*\*\*

조선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목포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예원예술대학교 문화영상창업대학원\*\*\*

Yoon-Ah Jo(misschoa@naver.com)\*, Min-Kyu Park(dheng@hanmail.net)\*\*,  
Yun-Geol Moon(moonyg@hanmail.net)\*\*\*

### 요약

본 연구는 시니어 예비창업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창업교육 전후 창업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고, 이러한 창업인식에 따른 창업교육 전후 창업관심도 및 창업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창업교육에 참여한 시니어 예비창업자 1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주요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창업교육 전후 창업관심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창업교육 전후 창업동기에 따라 창업관심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창업교육 전후 창업자신감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창업교육 전후 창업동기에 따라 창업자신감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시니어 예비창업자 대상 창업교육의 개선을 통해 창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창업의지를 높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교육과정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창업교육과정의 실제적인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의 구성과 운영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 중심어 : | 시니어창업 | 창업교육 | 창업관심도 | 창업자신감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in recognition for foundation before and after foundation education for preliminary senior founde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to verify the effects of the characteristics on the foundation interest and foundation confidence. For this, questionnaire survey was carried out for 103 preliminary senior founders who participated in the foundation education program implemented by government.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verified with SPSS 18.0 program. On the basis of empirical study results, the main results were withdrawn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foundation interest between before and after foundation education. Seco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foundation interest with foundation motivation at before and after foundation education. Thir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foundation confidence between before and after foundation education. Fourth,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foundation confidence with foundation motivation at before and after foundation education. In conclusion, this study recommends an alternative for education curriculum development and operation for improving the actual performance of the curriculums targeting the senior generation through reliable research.

■ keyword : | Senior Foundation | Foundation Education | Foundation Interest | Foundation Confidence |

\* 본 연구는 2014년 예원예술대학교 교내연구지원 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음

접수일자 : 2015년 06월 01일

심사완료일 : 2015년 07월 14일

수정일자 : 2015년 07월 14일

교신저자 : 문윤걸, e-mail : moonyg@hanmail.net

## I. 서론

우리나라의 고용구조는 '고용 없는 성장'속에서 급속한 고령화와 조기퇴직현상이 나타나고 중장년층의 실직은 청년실업과 더불어 사회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의 실직문제는 출산을 저하와 고급인력의 낭비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약 712만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주 퇴직연령대에 진입하면서 생산인력 부족현상의 초래 및 경제적 위협에 따라 정년을 맞은 시니어 세대의 구직난이 본격화 되고 창업에 대한 참여 및 관심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100세 시대의 도래,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청년실업의 증가, 전문직 여성의 일가정병행의 어려움 등으로 세대간, 그리고 성별 간 갈등문제는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문제의 해결의 대안으로 정부의 창업활성화정책이 대두되고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창업은 신용불량자와 가계대출의 증대로 귀결되었다. 창업을 세대별로 구별하면 청년창업과 시니어창업으로 구별할 수 있다. 청년창업과 시니어창업 모두 높은 위험요소들을 가지고 있지만, 청년창업의 경우는 실패 후 정부보조금조달 및 재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시니어창업의 실패는 최악의 경우 가정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어 청년창업에 비해 많은 노력을 통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철저한 준비의 부재로 인해 창업실패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

창업준비의 첫 번째 단계 중 하나가 창업교육이다.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많은 부처에서 창업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평생교육과정에서도 창업과 연관된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박근혜정부의 창업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다양한 주체에 의한 다양한 창업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창업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중장기적인 실효성은 검증되고 있지 않고, 단기적인 성과평가는 창업여부로 판단되어 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상당수의 창업교육은 교육생 모집의 편의성, 교육과정운영의 편의성 등으로 인하여 단기적이며 편향적인 교육과정으로 운영되어 지고 있다. 창업교육의 대상자는 창업에 대한 막연한 관심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으며, 이미 창

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자일 수도 있다. 또한 창업아이템이 없거나, 창업과 연계할 수 있는 경력과 기술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 따라서 창업교육의 성과를 단지 창업여부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위해 현재 중소기업청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니어를 대상으로 창업교육사업 중 한 개의 사업과 그 사업속에 포함된 5개의 단기 교육과정과 그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시니어창업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도움정도와 추후 반영해야 할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창업교육 전후 창업에 대한 관심도 및 자신감에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기술창업교육프로그램의 방안으로 실행된 시니어창업교육 프로그램의 유효성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해 성공 창업을 견인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 II. 이론적 배경

### 1. 창업의 개념 및 시니어 창업의 특성

#### 1.1 창업의 개념

우리나라 중소기업청의 창업지원 정책 측면에서는 이미 지난 2010년 이후부터 만 40세를 기준으로 청년층과 시니어층으로 구분하여 정책지원 연령층 대상을 차별화하여 적용하여 왔다. 즉 중소기업청이 시니어 창업스쿨 과정에서 적용된 시니어 개념은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예정인 만40세 이상을 시니어로 정의하고 있다. 아울러 기술 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 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창업의 전 과정을 일괄 지원하여 젊고 혁신적인 청년창업 CEO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사관학교의 지원 대상은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예비창업자의 연령구분에 의한 청년층과 시니어층의 구분의 실익은 학문적 차원에서와 연령대 별 창업실태 및 창업의 목적, 경로, 선택동기 등 창업행위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연령 대상별로 차별화된 창업지원 및 창업인프라 조성 지원정책의 효과와

효율을 최대화하는데 목적이 있다[1].

창업의 개념은 학설을 주장하는 학자에 따라 다소 다른 견해도 있지만 근본적인 내용은 큰 차이가 없다. 문헌에 의하면 창업이라 함은 한 개인이 주체가 되어 새로운 사업이나 업종을 선택하여 사업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제적·생산적 활동, 혹은 자본, 사업 아이디어, 종업원, 시설 등을 구비하여 일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제조업, 광업, 건축, 엔지니어링, 기술서비스업, 정보처리,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기계 및 장비 임대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중소기업창업지원법, 1986) 등으로 정의했으나, 2001년 3월에 개정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1에 따르면,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2].

중소기업 가운데 창업은 특히 벤처기업 형태로 이루어져 왔는데, 벤처기업은 '첨단기술이나 노하우를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중소기업으로 위험성이 크나 성공할 경우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모험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3].

## 1.2 시니어 창업의 특성

창업자 배경적 특성 가운데 연령대 집단 간 위험선호도 측면에서 볼 때, 청년층은 고위험 고수익(high risk high return)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시니어층은 저위험 저수익(low risk low return)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즉 청년층 창업자는 당장 안정적인 수익 보다는 장래 발전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반면 시니어층은 생계유지 목적으로 당장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경향을 지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병희 등(2011)의 연구에서는 혁신강조 신사업진출 의지는 시니어나 청년층이나 비슷하게 나타나며 경영면에서 시니어 계층이 청년층에 비해 보다 보수적인 성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4]. 창업의 선택 동기도 청년층의 경우 최근 실업난이 지속됨에 따라 취업의 대안으로서 창업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자아실현이나 아이디어 활용의 창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반면 시니어층의 경우 건강상의 제한, 나이 차별, 상사와의 불편한 관계 등으로 재취업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창업이 재취업보다 높은 유연성, 삶의 만족 제공 등으로 시니어세대에게 더 높은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있다[5]. 창업 준비기간도 청년층은 직장생활 중 또는 미취업 상태에서 비교적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할 것으로 보이지만 시니어는 대부분 직장퇴직 이후 노후대책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기감, 불안감 등으로 창업준비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니어세대 창업자의 강점은 경험과 자본 및 인적 네트워크와 전문성, 재무적 자원 측면에서 강점이 있지만 퇴직 이후 고독감, 이탈감 등으로 자신감이 크게 저하되어 있으며 창업선택 업종의 쏠림현상으로 상대적으로 폐업률이 높다는 점 등을 약점으로 들 수 있다. 다음에 사업실패 시 재기여부 면에 있어서도 청년층은 사업실패 시 취업 또는 재창업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반면, 시니어계층은 재기를 위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재기를 위한 종자돈 마련도 어렵기 때문에 재기가 거의 불가능한 형편이다.

시니어계층의 경우 김진수 등(2011)의 연구에 따르면 남자의 경우 경력과 전문성을 살려 제조업을 선호하고 여성의 경우 유통 물류산업, 식당·요식업 등 서비스업종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반면 부가가치가 높은 컨설팅, 인터넷 쇼핑몰, 문화 및 금융 서비스업종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6]. 시니어계층에 비해 진취적이고 위험감수성이 높을 것이라고 여겨온 청년층들조차 최근 안정화 추구 성향이 높아지면서 기술창업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 황성수(2013)의 연구에서도 졸업이후 3년 이내 창업을 선택한 대졸 청년층 가운데 기술창업 비중은 약 2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자영업의 실태를 분석한 정재호(2012)의 연구에서도 청년층 자영업이 전체 자영업에 비해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 서비스부문에 치중해 있으며 특히 교육 서비스업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7].

창업 잠재수요자군 규모를 분석한 결과, 시니어계층의 경우 2013년 8월 기준 만 40세 이상 실업자 127.5만 명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창업의사가 있는 비중 46.3% 적용 시 창업 잠재수요자 군은 청년층의 9.7배 수준인 58만명 수준에 이르게 된다[8].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니어 창업은 청년창업과는 그 특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며, 시니어 예비창업자의

특성요인은 창업의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9][10]. 또한, 창업숙성 특성에 따라 창업에 대한 자신감과 창업자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11].

## 2. 창업교육 현황

우리나라는 1980년대 초부터 일부 대학에서 ‘창업’을 정규과목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으나 창업교육에 관심이 높아진 것은 1986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제정되면서부터 라고 볼 수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주로 중소기업창업을 중심으로 1개월 이내의 예비창업자를 위한 단기 창업교육에 집중하여 왔다. 또한 산업자원부 등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협회 등에서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창업교육을 실시하여 왔다. 대학에서 보다 체계적인 창업교육은 1990년대 말부터 한국과학기술원, 숭실대학교, 진주산업대학교, 호서대학교, 건국대학교 등 여러 대학에서 창업관련 교과목을 개설 운영하고 있지만, 집중적인 창업교육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2000년부터는 청소년 창업교육을 위해 2001년 12월 ‘비즈쿨길라잡이’를 개발, 2002년부터 BizCool을 운영하는 등 창업교육에 더욱 관심을 기울였다. 비즈쿨(BizCool)은 비즈니스(Business)와 스쿨(School)의 합성어로 ‘학교교육과정에서 비즈니스를 배운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비즈니스에 필요한 기초 개념인 기업 및 기업가에 대한 이해, 창업과 경영, 현장 체험 등을 통한 체계적인 비즈니스 교육프로그램이다. 실업계 고교생들에게 비즈니스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진로 모색을 유도하여 청소년들의 기업가적 자질과 역량을 고취시킴으로써 이들을 미래의 경제역군으로 양성하여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창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12].

국내 창업교육은 중소기업청이 2005년 창업대학원 사업을 통해 창업교육의 체계화를 시작 한 이후 일시적인 정책적 선호 대안이 아닌 상시적이고 일정한 학문분야를 형성하며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적인 창업교육의 목표는 성장동력을 상실한 한국경제에 기술기반

의 성공창업을 유도하여 차세대 기술기반 우량기업을 육성하는데 있다. 그러나 국내 창업 및 기술사업화 교육은 일부학교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아직 초기성장단계에 머무르고 있다[13]. 향후, 국내 창업교육의 진화방향은 기술창업의 성공요인을 반영한 기술창업 및 기술사업화 교육수립이며 중소기업청의 창업교육 정책방향도 이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14]. 특히, 성공적인 창업 및 기술사업화 교육은 기술을 기반으로 성공적인 사업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며 핵심은 기술창업자가 그러한 과정을 실천적으로 경험하고 체화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15].

국내 기술창업에 대한 석사과정 이상의 고등교육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인 창업대학원 중심의 교육과 기술사업화 기반의 기술경영대학원 교육 중심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기술기반의 창업교육은 전자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국내 창업교육은 지난 1980년대 초반부터 중소기업경영 교육차원에서 창업에 대한 교과목이 개설되기 시작하였으며 주로 학위과정이 아닌 단기 연수과정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특히, 창업교육의 발전단계는 3단계로 분류되는데 1990년대 초반 창업교육 1단계에서는 대학의 경영학 관련 분야에서 1개 강좌를 개설하는 정도로 교육이 시작되었고, 2단계는 1990년대 후반 정부의 창업활성화 지원 등에 의해 대학이나 산업체에서 단기교육 강좌형태로 창업교육이 진행되었으며, 3단계는 창업과 기술벤처기업 경영을 전문으로 하는 학부와 대학원의 형태가 형성되며 최종적으로는 2004년 중소기업청이 전국 5개 권역에 5개 창업대학원을 지정 설립하며 학위과정의 창업교육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16].

한편 창업교육의 초기단계인 1단계와 2단계 그리고 창업대학원이 출범하기전의 3단계 창업교육은 교양강좌와 창업절차를 실무적으로 가이드 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충분한 교육과정이나 전문 컨텐츠 확보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못하였다. 특히 창업대학원의 교육프로그램이 이론교육 중심으로 되어있고 이론교육의 내용도 적절성 측면에서는 만족도가 높지 못한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실무와 실습중심의 교육과정 수립과 창업교육 품질관리 체계도입을 주장하였다[17]. 또한 학위

과정으로 체계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창업대학원에서의 창업교육도 아직은 현장중심의 교육내용과 실천교과중심의 교과과정수립이 미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18]. 기술창업교육 현황에 대한 문헌연구를 토대로 평가 할 때, 국내 기술창업 교육은 제도적인 학습 환경은 창업대학원의 출범과 이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교과과정 개설로 인해 진화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교과내용이나 프로그램의 실제성 측면에서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상당부분 존재함을 시사하고 있다.

### 3. 선행연구

본 연구에서는 시니어창업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창업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먼저, 시니어창업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기업가 정신, 창업역량, 환경요인, 창업의도 요인을 들 수 있으며, Buss(1987)는 창업가를 환경에 대한 수동적 수혜자가 아닌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인식하고 기업가 정신 가운데 진취성이 기업가 정신을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특성요인으로 주장하고, 창업가는 내외부 환경요인에서 현재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로서 설명하였다. 진취성은 창업가의 자세와 행동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으며, 따라서 기업의 경쟁우위의 기술능력과 같은 끊임없는 진취적 활동을 통해 경쟁우위를 강화할 수 있다[18]. 성장수와 김진수(2011)의 연구에 의하면, 기업가 정신 중 위험감수성이 창업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율성과 진취성은 창업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18].

시니어창업 의사결정에 미치는 또 다른 영향요인으로서 창업역량을 들 수 있다. 성공적인 창업가는 새로운 시장과 환경에서 불확실한 환경에 직면할 때 이를 대처하기 위해 자원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획득해야 한다. 성장수와 김진수(2011)는 창업역량을 창업가가 보유한 특정 역량들의 수준으로 정의하고, 세부 역량요인으로 기회인지, 창의성, 문제해결능력, 리더십과 의사소통능력,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개발 능력, 대인관계 기술로 요인화하였다. 검증 결과, 창업역량은 창업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통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8]. 한편, 창업가의 특성을 규명하는 연구에서 환경적 요인은 창업가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은 창업가의 개인적 환경과 창업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개인적 환경요인으로 성별, 창업가부모, 창업경험, 가족상황 등이 연구되어왔다.

시니어창업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요인 가운데 창업의도는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기 위한 의사결정과 행위를 형성하기 때문에 창업프로세스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다. 개인의 창업의사결정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고 준비된 행동으로 미래에 새로운 기업을 창업하기 위한 의도에 관한 이해는 창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현상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창업의도를 규명하는 개인적 특성은 창업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특성요인으로 자기효능감, 위험감수성, 통제의 취지, 성취욕구이며, 그밖에 자율성 등이 제시되고 있다[18].

다음으로 창업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이승재·황보운(2010)의 연구에서는 창업교육이 예비창업자의 심리적 특성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제시하였다. 첫째, 창업교육을 통해서 예비창업자의 성취욕구, 모호성의 수용, 창의성의 심리적 특성에는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교육 전과 교육 후를 비교해 볼 때 예비창업자의 성취욕구, 모호성의 수용, 창의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창업교육을 받은 예비창업자의 연령과 학력 그리고 창업교육을 받은 횟수에 따라 창업교육 전후의 예비창업자의 심리적 특성 변화 영향에 대한 검증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령과 교육 횟수에 따라 통제 위치와 창의성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력에 따라서도 역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19].

한편, 양영석(2010)의 연구에서는 기술창업교육프로그램 품질이 참여자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 TEC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PZB의 SERVQUAL 근거한 항목측정 결과 교육내용이 참가자의 만족도에 비교적 높은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품질 요인 가운데 유형성에 있어서도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 참여자의 만족도는 추천의향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TEC 프로그램의 높은 만족도가 타인에 대한 추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예측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20].

Sheppard et al.(1988)은 창업교육을 직업교육의 한 영역으로 보고 예비창업자들의 성취동기를 자극하여 그들이 지각하고 있는 일련의 가능성들을 기업가적 기회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즉, 창업교육을 통해 예비창업자들의 성취동기를 자극함으로써 창업에 대한 관심 및 자신감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21]. 또한, Vesper and McMullan(1988)은 창업을 성공적인 창업가를 벤치마킹하여 도출한 지식 및 기술을 창업교육에서 최우선 교육내용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며,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창업과 관련된 지식습득과 습득된 지식을 실제로 적용 및 활용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22].

### I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2014년 5월부터 9월까지 정부에서 시행하는 창업교육에 참여한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5개 교육과정 103명, 즉, 식품업창업과정 22명, 식품업재창업과정 20명, 공예창업과정 20명, 아이디어발전창업과정 21명, 아이디어발전재창업과정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배포하고 103명에게 100%로 회수하였다. 교육시작 전 설문과 교육수료 후 설문으로 나누어 조사함으로써 창업교육 전후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 2. 연구모형 및 가설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대상이 되는 교육과정의 특성을 반영하여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수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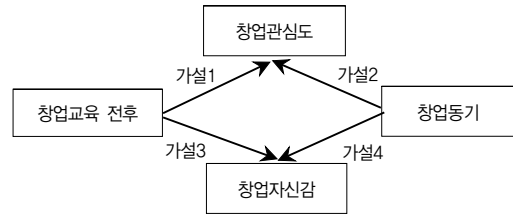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본 연구모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표 1. 연구 가설

가 설	내 용
가설1	창업교육 전후 창업관심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2	창업교육 전후 창업동기에 따라 창업관심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2-1	창업교육 전 창업동기에 따라 창업관심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2-2	창업교육 후 창업동기에 따라 창업관심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3	창업교육 전후 창업자신감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4	창업교육 전후 창업동기에 따라 창업자신감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4-1	창업교육 전 창업동기에 따라 창업자신감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4-2	창업교육 후 창업동기에 따라 창업자신감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3. 설문지 구성 및 변수의 조작적 정의

##### 3.1 설문지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창업관련 설문지 구성은 창업에 관한 기본정보와 동기, 그리고 창업에 대한 관심도 및 자신감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교육내용에 대한 도움 및 향후 필요한 내용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모든 문항은 명목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전체적인 설문지 구성내용은 [표 2]에 제시하였다.

#####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된 창업관심도 변인 및 창업자신감 변인의 경우 Gartner(1989)[23]와 Grant(1997)[24]가 창업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관심도

표 2. 설문지 구성내용

교육생용 (교육 시작 전)		
분류	설문내용	척도
기본 정보	창업관심업종	명목척도
	창업관심분야	명목척도
	성별, 연령	명목척도
동기	교육수강동기	명목척도
	창업동기	명목척도
창업관심 및 자신감	창업관심도	5점척도
	창업자신감	5점척도
교육내용	가장 기대되는 교육분류	명목척도
수료생용 (교육 수료 후)		
분류	설문내용	척도
기본 정보	창업관심업종	명목척도
	창업관심분야	명목척도
	성별, 연령	명목척도
동기	가장 도움이 된 분야	명목척도
	창업동기	명목척도
창업관심도 및 자신감	창업관심도	5점척도
	창업자신감	5점척도
교육내용	가장 도움이 된 교육 분류	명목척도
	향후 가장 필요한 교육내용	명목척도

및 자신감을 측정하도록 개발되었는데 이 중에서 일부 항목을 발췌하여 이를 Likert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측정을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창업관심도 및 창업자신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관심도는 '예비창업자의 창업에 대한 흥미 및 창업 여부에 대한 의지'로 정의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의 경우 Cronbach's  $\alpha=.87$ 로 나타나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창업자신감은 창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서 '예비창업자의 창업을 위한 자기스스로의 자신감이 충분한 심리적 상태'로 정의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의 경우 Cronbach's  $\alpha=.84$ 로 나타나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4.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에 대한 분석방법은

SPSS 18.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창업관심업종, 창업관심분야 등 기본정보에 대해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창업애로 및 창업동기에 따른 창업관심도와 창업자신감의 차이검증을 위해 일원변량분석(ANOVA)을 수행하였다. 또한, 창업관심도, 창업자신감은 교육전후별, 성별, 관심업종별, 창업동기별, 창업애로요인별로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test와 일원변량분석(ANOVA)을 수행하였다.

### IV. 실증분석결과

#### 1. 조사대상자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 교육생들의 특성을 조사한 결과, 본 교육생의 39.8%가 남자였으며, 60.2%가 여자로 나타나 여자 예비창업 조사대상자들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중간에 교육생 3명의 변동으로 수료생의 36.9%는 남자였으며, 63.1%는 여자였다. 연령별 구성을 분석해 보면 40대가 교육생의 48.5%로 나타났으며, 수료생의 49.5%로 나타났다. 50대가 교육생 43.7%, 수료생 42.7%였고, 60대 이상은 교육생과 수료생 모두 7.8%였다. 예비창업자는 약 85%였으며, 기창업자는 약 15%로 나타났다.

표 3.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교육생		수료생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남	41	39.8	38	36.9
여	62	60.2	65	63.1
합계	103	100.0	103	100.0
연령	교육생		수료생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40대	50	48.5	51	49.5
50대	45	43.7	44	42.7
60대	8	7.8	8	7.8
합계	103	100.0	103	100.0
창업여부	교육생		수료생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예비창업자	88	85.4	87	84.5
기창업자	15	14.6	16	15.5
합계	103	100.0	103	100

## 2. 창업교육 분야에 대한 인식

교육생의 창업관심업종은 약 70%가 제조업이며, 지식서비스업이 30% 가량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대상인 교육과정의 특성상 관심분야는 수료생 응답기준으로 생명식품이 43.7%, 공예디자인이 33%로 나타났다.

표 4. 창업관심업종과 관심분야

관심업종	교육생		수료생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제조업	70	68.0	71	68.9
지식서비스업	33	32.0	32	31.1
합계	103	100.0	103	100.0
관심분야	교육생		수료생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기계재료	13	12.6	4	3.9
전기전자	1	1.0	5	4.9
정보통신	6	5.8	6	5.8
화학섬유	1	1.0	5	4.9
생명식품	41	39.8	45	43.7
환경에너지	2	1.9	0	0.0
공예디자인	28	27.2	34	33.0
기타	11	10.7	4	3.9
합계	103	100.0	103	100.0

성별에 따라 도움이 된 교육은 실무교육-필수의 경우 남자교육생 26.3%, 여자교육생 38.5%, 실무교육심화는 남자교육생 26.3%, 여자교육생 13.8%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다른 교육 분류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심화교육의 경우 여자교육생들이 더 어렵게 생각한 경향이 있다. 관심업종별로 도움이 된 교육은 실무교육-필수는 제조업 42.3%, 지식서비스업 15.6%로 큰 차이를 보였다. 실무교육-심화는 지식서비스업 28.1%, 제조업 14.1%로 반대로 나타났다. 지식서비스업의 경우 관리교육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현장견학은 제조업이 15.5%로 지식서비스업 25.0%의 교육생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나 제조업의 경우 현장견학을 늘려야 한다. 실제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교육생 모집은 세부업종별 교육생 모집은 실제 모집에 한계가 있어 교육과정 구성에도 제한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세부업종별 교육과

정은 제조업의 경우 현장견학과 실습을 늘리고 지식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아이디어발전교육과정으로 모집하고 현 교육과정 구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 성별, 관심업종별 창업교육에 대한 효과

교육 분류	성별		관심업종	
	남	여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실무교육-필수	10	25	30	5
	26.3%	38.5%	42.3%	15.6%
실무교육-심화	10	9	10	9
	26.3%	13.8%	14.1%	28.1%
현장견학	7	12	11	8
	18.4%	18.5%	15.5%	25.0%
현장실무실습	1	4	3	2
	2.6%	6.2%	4.2%	6.3%
사업화코칭	10	15	17	8
	26.3%	23.1%	23.9%	25.0%
합 계	38	65	71	32
	100%	100%	100%	100%

또한, 향후 필요한 교육은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전체 수료생이 필요한 교육은 경영 25.2%, 기술 23.3%, 마케팅 22.3%, 자금조달 13.6%, 세무회계 11.7%, 지식재산권 3.9%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향후 필요한 창업교육에 대한 인식

교육 내용	합 계	성별		관심업종	
		남	여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기술	24	12	12	19	5
	23.3%	31.6%	18.5%	26.8%	15.6%
경영	26	11	15	16	10
	25.2%	28.9%	23.1%	22.5%	31.3%
세무회계	12	3	9	6	6
	11.7%	7.9%	13.8%	8.5%	18.8%
자금조달	14	4	10	9	5
	13.6%	10.5%	15.4%	12.7%	15.6%
지재권	4	1	3	4	0
	3.9%	2.6%	4.6%	5.6%	0.0%
마케팅	23	7	16	17	6
	22.3%	18.4%	24.6%	23.9%	18.8%
합 계	103	38	65	71	32
	10%	100%	100%	100%	100%



성별에 따라서는 기술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남자는 31.6%, 여자는 18.8%로 남자교육생들이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자교육생들이 기술을 어렵게 생각하는 반증으로 보여 지고, 한편으로는 여자교육생이 많은 공예교육 교육생의 경우 공예에 대한 기술 지식이 충분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케팅에 대한 교육은 여자교육생이 24.6%로 남자교육생 18.4%에 비해 더 많이 필요로 하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6.8%로 지식서비스업 15.6%에 비해 기술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의 경우 지식서비스업이 31.3%, 제조업이 22.5%로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무회계도 지식서비스업이 18.8%, 제조업이 8.5%로 나타났다. 예비창업자가 많은 교육생들의 특성상 제조업은 제품생산에 관련된 교육을 더 필요로 하며, 지식서비스업은 경영관리에 관련된 교육을 더 필요로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창업 후 제조업의 경우 생산은 외주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므로 경영관리가 오히려 더 중요하고 지식서비스업의 경우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의 개발이므로 생산관리가 더 중요하다. 따라서 사업지침 상 실제 교육생 모집에 유연성이 확보될 수 있다면, 창업경험이 없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경험이 있는 창업자가 구별되는 교육과정과 교육생모집을 필요로 한다.

### 3. 창업교육에 따른 창업관심도 및 창업자신감

#### 3.1 창업관심도

창업교육 전후 창업에 대한 관심도의 빈도분석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창업교육 전후 창업관심도 빈도분석

창업 관심도	교육 전		교육 후	
	빈도 (명)	비율(%)	빈도 (명)	비율(%)
매우 높다	67	65.0	54	52.4
높다	32	31.1	38	36.9
보통이다	4	3.9	10	9.7
낮다			1	1.0
매우 낮다			0	0.0
합계	103	100.0	103	100.0

창업에 대한 관심도는 ‘높다’와 ‘매우 높다’로 응답비율이 교육시작 전에는 각각 31.1%와 65.0%로 96.1%로 나타났다. 창업교육 후에는 ‘높다’와 ‘매우 높다’의 비율이 각각 36.9%와 52.4%로서 89.3% 수준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창업교육 후 창업에 대한 관심도가 다소 낮아진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창업교육을 통하여 현실적으로 창업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인식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한편, 창업교육 전후 창업관심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교육 전 창업관심도 평균은 4.61, 교육 후 창업관심도 평균은 4.41로 교육 전후 창업관심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2.270, p<.05$ ). 하지만 남녀 집단 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1 ‘창업교육 전후 창업관심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표 8. 창업교육 전후 창업관심도 차이검증

구분		평균	표준 오차	표준 편차	t(p)
전체	교육전 (n=103)	4.61	0.056	0.56	2.270* (0.025)
	교육후 (n=103)	4.41	0.070	0.71	
교육 전	남 (n=41)	4.66	0.090	0.58	0.468 (0.495)
	여 (n=62)	4.58	0.071	0.56	
교육 후	남 (n=38)	4.45	0.098	0.60	0.188 (0.666)
	여 (n=65)	4.38	0.095	0.76	

\* p(0.05)

또한, 창업교육시작 전 창업동기별 창업관심도에 대한 차이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경력기술 활용’동기의 창업관심도 평균이 4.70으로 제일 높게 나왔고, ‘도전정신 실천’동기의 창업관심도 평균이 4.48로 제일 낮게 나왔다. 한편, 교육시작 전 창업동기별 창업관심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F=0.841, p>.05$ ). 따라서 가설2-1 ‘창업교육 전 창업동기에 따라 창업관심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표 9. 창업교육 전 창업동기별 창업관심도 차이검증

창업동기	평균	표준 오차	표준 편차	F(p)
경력기술활용 (n=47)	4.70	.080	.548	0.841 (0.502)
도전정신실천 (n=21)	4.48	.148	.680	
높은 소득실현 (n=26)	4.62	.097	.496	
취업의 어려움 (n=6)	4.50	.224	.548	
기타 (n=3)	4.33	.333	.577	
합계 (n=103)	4.61	.056	.564	

창업교육 후 창업동기별 창업관심도에 대한 평균분석 결과 ‘경력기술 활용’동기의 창업관심도 평균이 4.43으로 제일 높게 나왔고, ‘취업의 어려움’동기의 창업관심도 평균이 4.00으로 제일 낮게 나왔다. 한편, 창업교육 후 창업동기별 창업관심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0.985, p>.05). 교육전후의 창업동기별 창업관심도를 비교해봤을 때 전체 평균은 약간 감소하였다. 따라서 가설2-2 ‘창업교육 후 창업동기에 따라 창업관심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표 10. 창업교육 후 창업동기별 창업관심도 차이검증

창업동기	평균	표준 오차	표준 편차	F(p)
경력기술 활용 (n=30)	4.43	.124	.679	0.985 (0.420)
도전정신 실천 (n=34)	4.38	.140	.817	
높은 소득실현 (n=28)	4.39	.119	.629	
취업의 어려움 (n=5)	4.00	.316	.707	
기타 (n=6)	4.83	.167	.408	
합계 (n=103)	4.41	.070	.706	

### 3.2 창업자신감

창업에 대한 자신감의 빈도분석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창업교육 전후 창업자신감 빈도분석

구 분	교육 전		교육 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매우높다	46	44.7	46	44.7
높다	26	25.2	27	26.2
보통이다	28	27.2	27	26.2
낮다	3	2.9	3	2.9
매우낮다	0	0.0	0	0.0
합 계	103	100.0	103	100.0

창업자신감의 빈도분석결과 창업교육 전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창업교육을 통한 자신감 상승요인을 실제창업의 어려움에 대한 인지상승이 상쇄한 결과로 보인다. [표 12]에 제시한 창업자신감에 대한 차이검증 결과 전체 교육생에 대한 창업교육 전후의 창업자신감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0.082, p<.05). 또한, 남/여 성별 간의 창업자신감의 평균에 대한 차이는 창업교육 전후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3 ‘창업교육 전후 창업자신감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표 12. 창업교육 전후 창업자신감 차이검증

구분	평균	표준 오차	표준 편차	t(p)
전체	교육전 (n=103)	4.12	0.09	-0.082 (0.935)
	교육후 (n=103)	4.13	0.09	
교육전	남 (n=41)	4.24	0.139	1.337 (0.250)
	여 (n=62)	4.03	0.117	
교육후	남 (n=38)	4.26	0.123	1.387 (0.242)
	여 (n=65)	4.05	0.121	

\* p<0.05

교육시작 전 창업동기별 창업자신감의 차이검증 결과는 [표 13]과 같다.

교육시작 전 ‘경력기술 활용’동기의 창업자신감 평균이 4.23으로 가장 높았고, ‘높은 소득실현’동기의 창업자신감 평균이 3.96으로 가장 낮았다. 한편, 창업교육 전 창업동기별 창업자신감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0.564, p>.05$ ). 따라서 가설4-1 ‘창업교육 전 창업동기에 따라 창업자신감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표 13. 창업교육 전 창업동기별 창업자신감 차이검증

창업동기	평균	표준 오차	표준 편차	F(p)
경력기술 활용 (n=30)	4.23	.122	.840	0.564 (0.689)
도전정신 실천 (n=34)	4.10	.206	.944	
높은 소득실현 (n=28)	3.96	.196	.999	
취업의 어려움 (n=5)	4.17	.307	.753	
기타 (n=6)	3.67	.882	1.528	
합계 (n=103)	4.12	.090	.911	

한편,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창업교육 후 ‘경력기술 활용’동기의 창업자신감 평균이 4.30으로 가장 높았고, ‘취업의 어려움’동기의 창업자신감 평균이 3.80으로 가장 낮았다. 한편, 창업교육 후 창업동기별 창업자신감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0.570, p>.05$ ). 따라서 가설4-2 ‘창업교육 전 창업동기에 따라 창업자신감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표 14. 창업교육 후 창업동기별 창업자신감 차이검증

창업동기	평균	표준 오차	표준 편차	F(p)
경력기술 활용 (n=30)	4.30	.160	.877	0.570 (0.685)
도전정신 실천 (n=34)	4.12	.162	.946	
높은 소득실현 (n=28)	4.00	.178	.943	
취업의 어려움 (n=5)	3.80	.200	.447	
기타 (n=6)	4.17	.401	.983	
합계 (n=103)	4.13	.089	.904	

이상으로 창업교육 전후의 창업관심도의 차이와 창업교육 전후의 창업동기에 따른 창업관심도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아울러 창업교육 전후의 창업자신감의 차이와 창업교육 전후의 창업동기에 따른 창업자신감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창업관심도의 경우 창업교육 후 창업에 대한 관심도에 있어서 유의한 증가가 나타났으나, 창업자신감의 경우에는 창업교육 전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창업교육을 통하여 창업에 대한 관심 자체는 증가하였으나, 창업에 대한 자신감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창업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조사대상 시니어 예비창업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시니어 예비창업자들이 가진 경력과 기술이 창업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한편, 시니어 예비창업자의 경우 창업동기(경력기술 활용, 도전정신 실천, 높은 소득실현, 취업의 어려움 등)에 따른 창업관심도와 창업자신감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창업에 대한 관심도와 자신감에 있어서 단기 간의 창업교육보다는 개인적인 준비가 더 중요한 요인으로 보인다. 즉, 단기 창업교육만으로는 창업에 대한 창업관심도와 창업자신감을 향상시키기에는 창업에 대한 두려움이 큰 시니어 예비창업자들의 특성 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현재 중소기업청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니어를 대상으로 창업교육사업 중 한 개의 사업과 그 사업속에 포함된 5개의 단기 교육과정과 그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정부의 시니어 창업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도움정도와 추후 반영해야 할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창업교육 전후 창업에 대한 관심도 및 자신감에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그리고 창업동기에 따른 창업교육 전후 창업에 대한 관심도 및 자신감의 차이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술창업교육프로그램의 방안으로 실행된 시니어창업교육 프로그램의 유효성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실증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교육 전후 창업관심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창업교육 전후 창업동기에 따라 창업관심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창업교육 전후 창업자신감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창업교육 전후 창업동기에 따라 창업자신감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주요 결과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시니어 예비창업자 대상 창업교육의 경우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관심도는 높아지게 되었으나, 현행 창업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시니어 예비창업자의 창업 동기, 즉 경력기술 활용, 도전정신 실천, 높은 소득실현, 취업의 어려움 등 창업동기와는 무관하게 창업에 대한 자신감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현행 시니어 예비창업자 대상 창업교육은 피교육자인 시니어 예비창업자에게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행 시니어 예비창업자 대상 창업교육의 개선을 통해 창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창업의지를 높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니어를 대상 창업교육과정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창업교육과정의 실제적인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설계의 한 대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기술창업교육의 교육과정의 구성과 교육과정의 운영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 교육과정 정책수립과 창업교육과정 설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여러 정부부처사업 중 중소기업청의 기술창업교육사업 중 한 개의 사업과 그 사업 속에 포함된 5개의 단기 교육과정과 그 수강생 103명만을 대상으로 수행된 결과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확대하여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하여 설문지를 더 심도 있게 구성하여 시니어를 대상

하는 단기 기술창업 교육과정설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연구결과에서 제언한 대안들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예비창업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관심도를 높일 수 있고, 나아가 예비 창업 시니어들이 창업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해 나가는 창업자신감을 갖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한 창업교육은 창업관심도와 창업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설계와 창업교육 과정이 시니어 예비창업자들에 특화된 교육과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면에서 교육프로그램이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시니어를 위한 창업교육 기관에서는 창업자 특성을 고려하고, 교육프로그램 개발담당자의 전문 지식과 경험 등 다양한 성공 사례 등을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이외에도 실제 시니어 창업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창업관심도 및 창업자신감 증진 전략, 교수실재감 전략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된 창업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고자 한다.

시니어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지원정책은 반드시 창업교육과 연계되어 수립 및 실행되어야 한다. 또한, 은퇴자인 시니어 예비창업자 특성 상 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청년 예비창업자들에 비해 매우 높다. 따라서 창업교육 시니어들에게 다양한 창업지원책을 제시해야 한다.

현재 창업교육과정은 창업과 관련된 지식 전달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창업실패의 두려움이 큰 시니어 예비창업자들의 심리적 특성은 창업 교육에 따라 창업관심도, 창업의지, 창업자신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시니어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창업교육은 창업관심도 및 창업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특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가 시니어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창업 교육 교과과정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창업교육의 성과를 높여 시니어 예비창업자들의 성공을 높이는데 이바지 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1] 오상훈, *청장년 및 시니어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연구*,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2] 박선영, *청년 창업에 대한 정부지원 시책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테크노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3] 장태욱, *창업교육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4] 이병희, 이상명, 최다운, "시니어 벤처기업의 경영 특성에 관한 연구," *전문경영인연구*, 제14권, 제3호, pp.117-138, 2011.
- [5] 박재완, 김용태, "창업교육 만족도 및 참여 동기가 창업교육 효과에 미치는 영향: 창업대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제22권, 제2호, pp.959-977, 2009.
- [6] 김진수, 최명길, 성장수, "시니어 창업가의 특성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2권, 제4호, pp.1833-1843, 2011.
- [7] 정재호, *청년층 자영업의 실태와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2.
- [8] 김정미, *제4차 OECD세계포럼을 다녀와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 [9] 육창환, 전인오, "창업가의 특성요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0호, pp.661-676, 2014.
- [10] 최명화, 조성숙, "중년 직장인의 퇴직 후 창업효능감 및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7호, pp.226-241, 2014.
- [11] 송경숙, "의식산업 창업속성이 창업 과잉자신감과 창업자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3호, pp.414-426, 2014.
- [12] 김정연, *전문계고등학교 BizCool(창업교육)의 학습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13] 정현배, "창업대학원 교육프로그램에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연구*, 제12권, 제1호, pp.109-128, 2008.
- [14] 김주미, 오상훈, 양재경, *우리나라 창업교육 현황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2008.
- [15] 양영석, 최종인, "공공R&D 기관의 효과적인 기술사업화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지*, 제11권, 제1호, pp.287-294, 2010.
- [16] 정중서, 민경세, "창업교육프로그램의 현황 및 개선방안." *벤처창업연구*, 제3권, 제2호, pp.1-29, 2008.
- [17] 김대호, 김홍, "기술창업장애요인 실태조사," *벤처창업연구* 제4권, 제1호, pp.67-88, 2009.
- [18] 성장수, 김진수, "시니어창업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제33권, 제3호, pp.109-133, 2011.
- [19] 이승재, 황보윤, "단기창업교육이 예비창업자의 심리적 특성 변화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벤처창업연구*, 제5권, 제1호, pp.19-44, 2010.
- [20] 양영석, "기술창업교육프로그램품질이 참여자 만족과 추천의향에 미치는 영향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1권, 제3호, pp.71-78, 2010.
- [21] B. Sheppard, J. Hartwick, and P. Warshaw, "The Theory of Reasoned Action: A Meta-analysis of Past Research with Recommendations and Future Research,"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15, No.3, pp.325-344, 1998.
- [22] K. H. Vesper and W. E. McMullan, "Entrepreneurship: Today Courses, Tomorrow Degree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13, No.1, pp.7-13, 1998.
- [23] W. B. Gartner, "Some suggestions for research on entrepreneurial traits and characteristic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14, No.1, pp.27-38, 1999.
- [24] R. Grant, "Comtemporary Strategy Analysis, The teaching of psychology," *Essays in honor of Wilbert J. McKeachie and Charles. F. Brewer*, pp.41-55, 1998.

저 자 소 개

조 윤 아(Yoon-Ah Jo)

종신회원



- 2010년 8월 : 조선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박사수료)

<관심분야> : 문화콘텐츠, 창업& 마케팅전략

박 민 규(Min-Kyu Park)

정회원



- 2015년 3월 : 목포대학교 경영대학원 관광경영학(박사과정)
- 2010년 8월 ~ 현재 : 삼정종합컨설팅 전문위원 겸 기술이사
- 2015년 1월 ~ 현재 : 주식회사 대덕비티씨 대표이사

<관심분야> : 관광경영, 창업& 마케팅전략

문 윤 결(Yun-Geol Moon)

종신회원



- 2005년 3월 ~ 현재 : 예원예술대학교 문화영상창업대학원 전공주임교수
- 2010년 1월 ~ 현재 : 한국벤처창업학회 이사

<관심분야> : 문화콘텐츠, 창업& 마케팅전략